



韓屋

수천 년 전 우리 민족의 역원을 위해 애써온 고초의 주저 무화 한옥은 가족이 오고나온다는 삶의 터전이
한옥이 코르티크 벽에 가노마하 그 기이한 열을 이기고 있다. 우리 고유의 무화를 고스라히 기치한 현대 한옥을
때마침 한옥 마스터를 재해석하고자 한다. 인공 화의 마스터의 시공정사를 시작으로 야생의 상부리 등 수차작이로
연기한다.

에디터 김민정 사진 김민정 장소 협조 한옥문화원(韓屋文化院) 신원정사(神源精舍)

사람 체취 물씬 풍기는 우리네 집 삶의 지혜가 묻어나는 한옥 산책

봄비가 내린다. 보슬보슬 빗소리에 방문을 활짝 여니 누리가 온통 녹색으로 아우성이다.

서늘한 바람을 맞으며 대청에 앉아 처마 너머 푸른 산을 바라보니 어느새 마음에 평화가 내려앉는다. 나무 내음, 빗소리, 따뜻한 느낌. 이 모두가 한옥이 가진 너무나도 포근한 아늑함이다.



한옥은 고향이라는 드레스룸이 따로 있어 방 내부를 최대한 간소화한다.

우리에게 집은 단순히 생활을 위한 공간에 그치지 않는다. 인간의 삶을 담는 그릇이요, 삶을 투영하는 거울이 바로 집이다. 하지만 우리 조상의 삶의 지혜가 담긴 한옥은 설 자리를 잃어가는 분위기다. 본디 우리가 쓰던 그릇과 거울이 내동댕이쳐진 이유를 혹자는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사고 탓으로, 혹자는 일제로 인한 단절된 역사 탓으로 돌린다. 과연 그뿐일까? 목수(木壽) 신영훈 선생은 가장 큰 이유로 현대인의 게으름을 꼽는다. 양옥으로 대변되는 현대 건축이 눈에, 몸에 가까이 있다 보니 조금 멀리 있는 한옥에 대한 공부를 게을리 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집주인이 지어야만 하는 집 한옥은 자연을 품은 채 사람과 교감하는 집이다. 집은 사람의 기를 만나 생명을 얻고 사람은 다시 집이 품은 자연의 기를 받아 건강한 생명력을 얻게 된다. 이 때문에 한옥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집, 사람다운 사람이 사는 집, 애깃거리가 있고 사람을 보듬고 쓰다듬어줄 수 있는 집이라고 하는 것이다. 한옥의 사람 위함은 집을 짓는 모든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집주인의 식견이 7이라면 목수의 식견은 3'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집은 어떤 모양이 됐으면 좋겠으며, 방이나 부엌은 어디에, 지붕이나 기둥의 자재는 무엇으로 할지 등등 집주인이 대부분 윤곽을 그려내야 한다. 무슨 일이 그렇게 어렵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한편 당연한 일이다. 직접 살아본 사람만이 그 집이 어때야 한다는 걸 가장 잘 알기 때문이다. 목수가 하는 일이란 왜 이렇게 구상했으며 그렇다면 전문가 관점에서 너무 크다, 작다 등의 조언과 수정을 거쳐 건축하는 작업을 담당할 뿐이다. 이 과정이 어렵다 보니 한옥은 돈만 있어서는 절대로 지을 수 없다.

선조의 지혜와 손때가 묻은 기술 한옥은 양옥이나 아파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깊은 처마를 가지고 있다. 처마는 단순히 지붕의 역할을 넘어 그늘을 만들고, 바람을 모아주는 역할을

한옥의 담과 처마는 산세와 어울리도록 적절한 높이로 설계된다.



인간의 삶을 투영하는 그릇이요, 삶을 투영하는 거울이 바로 집이다. 수천 년 동안 우리네 삶을 담고 살아온 한옥은 간결한 삶의 방식과 지혜로운 구조들로 채워져 있다. 심원정사, 학사재, 상곡당 등 한동안 사라졌던 조상의 지혜로운 삶에 대한 관심이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는 무척이나 반가운 일이다.

맡는다. 덕분에 한옥에 사는 이들은 선풍기조차 없이 폭폭 찌는 한여름 더위를 무사히 넘길 수 있다. 천연 냉방의 원리는 간단하면서도 매우 과학적이다. 바깥의 피약별과 처마 밑의 서늘한 공기가 대류를 만들어 바람을 일게 하는 것. 한편 넓은 대청마루가 가진 과학성도 뛰어나다.

한옥은 집의 높이, 즉 기단을 높여 습기를 막는 한편, 대청마루 뒤로 '바라지문' 을 내어 앞마당과 뒷마당을 연결한다. 뒷마당에는 대나무 등을 심어 저기압 상태를 유지하면 넓게 뚫린 앞마당과 자연스러운 대류가 발생해 시원한 바람이 일게 되는 원리다. 이렇듯 과학적인 지혜가 담겨 있기에 현대화된 한옥에서도 대청은 빼놓을 수 없는 요소로 남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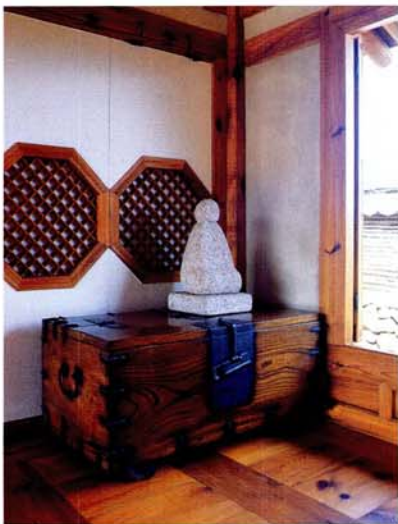
한옥은 '수치화된 주택' 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 선조들의 지혜가 남다른 것을 알 수 있다. 한옥에는 서까래가 드러나는 높은 마루도, 일어서면 부딪칠 듯한 낮은 방도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이유가 있다. 마루는 주로 서서 움직이는 공간이기에 서 있는 눈높이에 맞게 천장을 높인 것이고, 방은 주로 눕거나 앉아 있는 공간이기에 천장을 낮추어 정신적인 안정을 꾀한 까닭이다. 눈높이를 고려한 한옥의 설계는 이뿐만이 아니다. 방의 창문이 시작되는 하단부인 머름대 높이는 평균 신장을 지닌 이가 앞마당에 서서 집을 바라봤을 때의 눈높이와 동일하다. 방 안에서 본다면 방바닥과 머름대 상단의 높이 차가 생기는데, 이 역시 문갑 높이와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이 딱 맞아떨어진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새집증후군은 한옥과는 거리가 먼 얘기다. 나무와 흙, 짚, 기와가 한옥 건축에 쓰이는 자재 전부다. 유해물질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더욱이 한옥은 집을 짓는 터전을 훼손하지 않는다. 터가 생긴 대로 약간만 손질하면 집을 짓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기도 하려니와 산의 정기를 받기 위해 터를 돌위 쓸지언정 깎는 일은 찾아보기 어렵다. 못 하나 박지 않는 짜맞춤 구조이기에 집을 옮기는 일도 가능하다. 폭설이나 지진 등의 자연 재해가 아파트를 무너뜨릴 수는 있어도 한옥을 무너뜨리지는 못할 정도로 내구성도 강하다. 건축 폐기물이 나올 일이 없다는 얘기. 이 밖에도 한옥은 채광과 난방 등 현대 양옥 주택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장점이 많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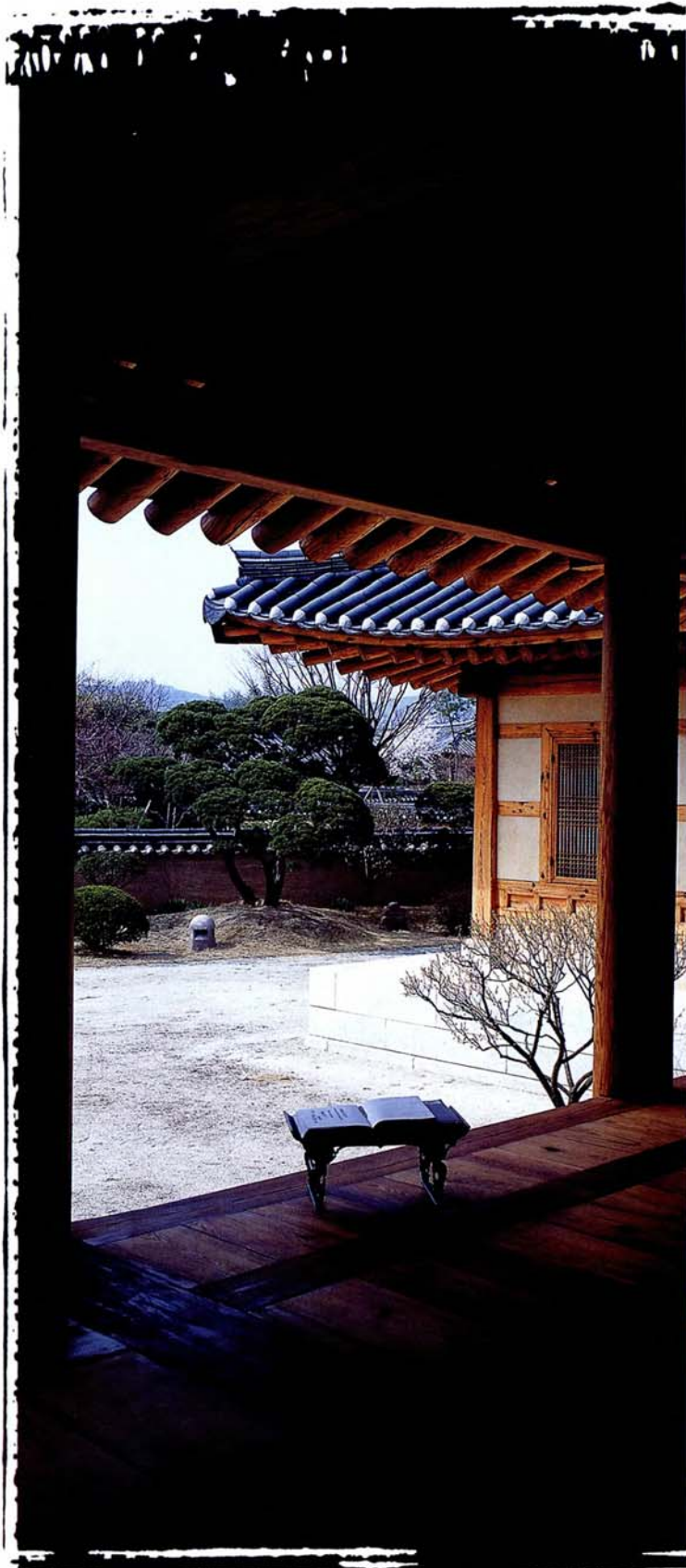
부자만 지을 수 있는 집 살림집으로 한옥은 이제 찾아보기 어렵다. 식민지 시대와 전쟁을 겪으며 선진 교육이 곧 서양식 교육으로 인식됐고, 그 결과 건축 분야에서도 한국 건축은 도외시됐다. 한국 건축을 배울 곳이 없으니 자연스레 도태된 것이다. 그나마 한국 건축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건 사실상 사찰 건축과 문화재 보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이 한옥 연구를 계속해왔고, 뜻있는 사람들은 내 집으로 한옥을 선택하는 문화가 태동하고 있다. 안동의 심원정사, 강화의 학사재, 양평의 상곡당 등이 그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하지만 내가 사는 집조차 투자의 대상으로 여기는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한옥과 친해지기가 그리 쉽지 않다. 평당 건축비만 해도 기본 6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형성돼 있어 뜻있는 부자가 아닌 이상 엄두도 못 낼 일이다. 더욱이 한옥 건축비에는 조경이 포함돼 있지 않으니 이런저런 관리 비용을 더한다면 강남 아파트 평당 가격과 맞먹는 수치가.

그렇다고 한옥이 돈만 있으면 지을 수 있는 집은 아니다. 앞서 말한 '집주인의 식견이 7이라면 목수의 식견은 3' 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스스로 공부하고 그 성과를 내 집에 투영해내지 않는 한 제대로 된 집을 짓기가 어렵다. 한편 관리 부분도 익숙지 않다. 아파트 문화가 대중화되다 보니 모든 관리를 남이 해주는 데 익숙한 우리에게 한옥은 번거로우리만치 손이 많이 간다. 마당을 가꾸어야 하고 집의 주재료인 나무에 주기적으로 기름도 먹여야 한다. 이렇듯 어렵고 돈도 많이 드는 일이 한옥 건축이지만, 눈으로 직접 보고 난 뒤에는 그 매력을 잊을 수 없다. 각박한 직선보다 곡선이 보다 푸근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이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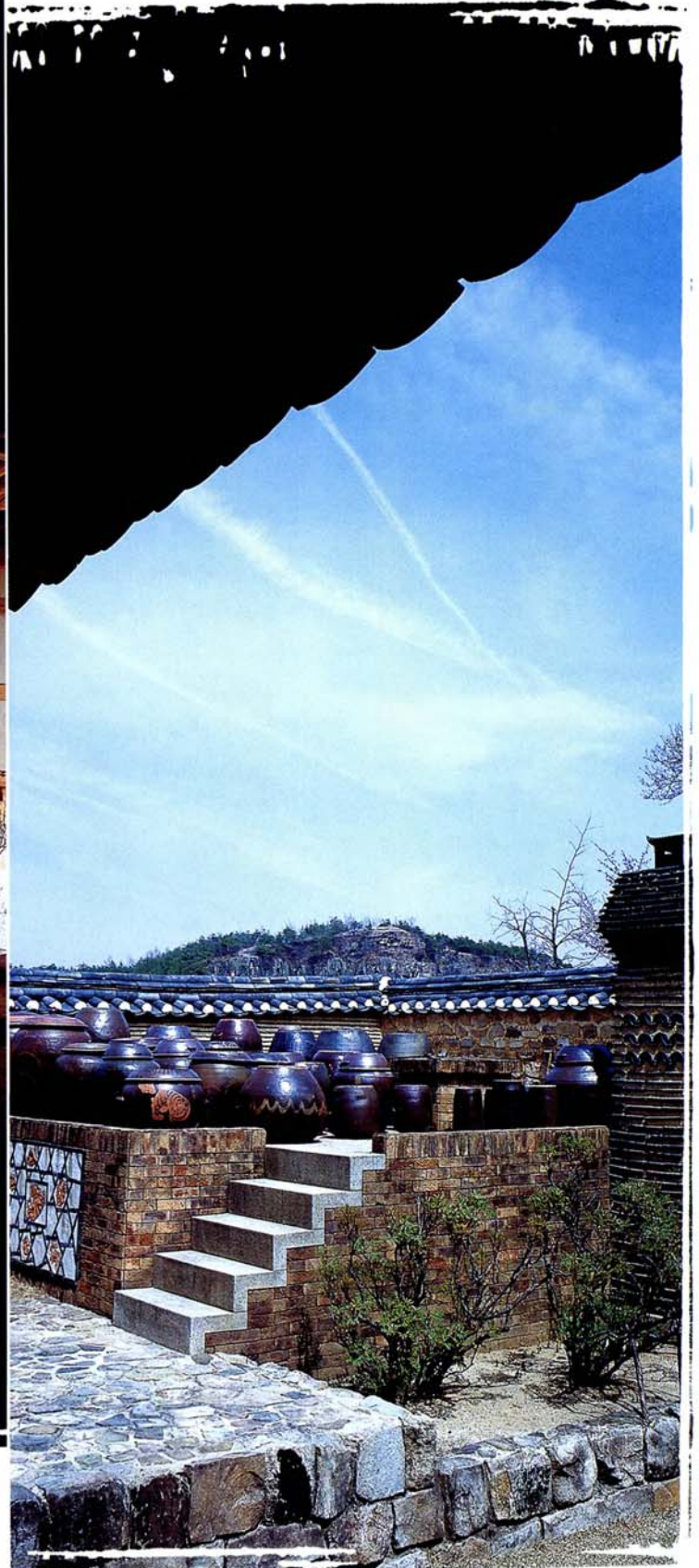


바라지문 옆의 오래된 켜는 대청의 유일한 장식품이다.



한여름 서늘한 우물마루 대청에서 책 읽는 일은 신선놀음이라 할 만하다.

벽면을 <불로장생도>로 장식한 장독대, 그 아래는 보일러실이 감춰져 있다.



군더더기 없는 간결함 안동 하회마을 심원정사

중국의 형(形), 일본의 색(色), 그리고 한국의 선(線). 한국의 선을 대표하는 건 다름 아닌 처마다. 직선적인 중국이나 일본 것과 달리 그 끝이 하늘로 날아오를 듯 치켜 올라간 우리의 처마는 육중한 지붕의 무게조차 하늘거리는 깃털의 느낌으로 바꿔놓는다. 수백 년을 지내온 고택이 즐비한 하회마을에서는 부챗살 모양의 처마가 자연에 녹아 있다.

심원정사는 지어진 지 열두 해가 지났지만 지금도 보송보송한 아기 같은 집이다. 집주인의 세심한 관리의 흔적이 곳곳에 배어나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 집이 발산하는 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는 주재료인 소나무에서 비롯된다. 심원정사에 사용된 나무는 춘양목이다. 문양이 무명 같고 홍조를 띤 듯 발그스레한 빛깔이 일품인 데다 단단하기까지 집 짓기에 안성맞춤인 나무다. 요즘 지어지는 대부분의 한옥들이 굽고 곧은 나무를 구하지 못해 수입 홍송을 사용하는 현실이다. 하지만 살림집은 단청을 하지 않는 백골집이기에 춘양목을 최고로 친다.

집주인의 나무 관리도 남다르다. 아무래도 대들보감으로 들어온 나무에 비를 맞혀 청태를 끼게 하는 우를 범했던 경험 탓에 더욱 그러하다. 비바람에 시달리는 한옥은 썩지 않도록 이따금씩 기름을 먹여야 한다. 심원정사는 3년에 한번 올리브유를 먹여 관리한다.

나무가 붉은색이라 나무를 검게 만드는 콩기름이나 들기름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심원정사는 집터에 트인 미음자(ㄷ)자 형태로 앉았다. 집터가 남북이 짧고 동서가 길어 한옥의 표본인 미음자형(口) 구조는 앉힐 수 없었다. 일자형(一) 구조는 권위 있지만 관아 같다는 이유로 오순도순 정다운 맛을 살릴 수 있는 트인 미음자 형태를 택했다. 한옥의 면적 기준인 칸(間)으로 따지면 총 열여섯 칸 집이다. 안채 몸체가 여섯 칸, 좌우 날개가 두 칸씩(43.56평), 그리고 솟을대문 좌우로 세 칸씩 붉은 문간채(11.27평)로 구성된다.

이 집을 짓는 데 투입된 인력은 화려하다 못해 눈부시다. 목수 신영훈 선생이 자문을 맡았고 인간문화재 신응수도편수가 공사를 진행했다. 집의 설계 역시 최고 수준의 태창건축 박태수 사장이 담당했다.

소목장 조찬형 선생은 집에 들어간 창호를 맡았다. 이외에도 조정현 교수가 합각을 비롯한 청동 물막이 등을 만들어주었고, 서하 임창순 선

생이 당호를 짓는 등 각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한옥 분야의 대가들이 모여서 만든 집인 만큼 소소한 부분까지도 빈틈이 없다. 반가의 집은 일상의 흔적을 그대로 내비치는 집이 아니다. 요즘 고급 주택에서나 볼 수 있는 드레스룸이 '고방'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있었을 정도다. 심원정사는 한옥에서 가장 처리가 어렵다는 배선과 보일러실 처리를 미적 완성도까지 더해 손쉽게 해결한 모범 케이스다. 전선은 집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바닥과 벽을 이용해 따로 심어두었다. 심지어 스위치는 모두 방바닥 쪽으로 배치해 조선조 대가집 안방의 여백의미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무엇보다 보일러실은 이 집 장식의 백미다. 장독대를 2미터 높이로 돌우어 그 아래 공간을 보일러실과 창고로 사용했기에 바라지문을 열고 나간 뒷마당에서도 한옥의 단아함이 느껴진다. 사방의 벽은 왕겨와 함께 구운 거친 흙빛 벽돌로 마감하고 계단 쪽은 조정현 교수가 준비한 <불로장생도>로 화폭을 꾸몄다. 꽃담 혹은 화문장(花紋牆)으로 불리는 환경도에 작품이다. 불로초를 입에 물고, 두 날개를 활짝 펴 상서로운 구름 위를 날고 있는 두 마리 학이 좌우 대칭으로 얼굴을 마주 보는 형상은 삼화토(三華土)를 사용한 면회법으로 완성됐다.

집을 지을 당시 치목은 현장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집을 짓는 자리에서 필요한 자재를 다듬어 쓰는 방식은 제재소에서 필요한 자재를 가져다 쓰는 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한다. 총감독이자 새집의 안주인인 향산 윤용숙 여사가 '큰 대문 달린 이상향의 집'을 짓고자 최선을 다한 것이기도 하지만 안동으로 금의환향을 위해 심적 물적으론 배려를 한 덕택이다. 소소한 곳까지 세심히 살핀 이 집의 건축에는 무려 3년이 소요됐다. 집 짓기 준비 기간을 포함하면 4년의 공이 들어간 집이다. 하회마을에서 몇 안 되는 비공개 주택이지만 한국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싶다면 꼭 들러봐야 할 집이다. ㉞

